

김민환의 세상읽기



도대체 왜 그분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 임하면서 국민통합, 정치 쇄신 및 경제민주화를 국정운영의 3대 지침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단 호남인만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 도하의 언론은 대통령의 명제에 공감하면서 총리 후보로 여러 명의 호남인을 일 순위로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뒤 국민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했다. 그중 통합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그 위원회의 초에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임명했다.

대통령비서실을 짚 때도 마찬가지였다. 몇몇 호남 출신이 실장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경남 고성 출신인 허태열 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등용했다.

박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국정운영 지침인 국민통합은 그림 잘 친척되고 있는가? 호남인들은 박 대통령의 대통령 의지가 인사에서 확연히 드러나기를 기대했다.

대통령이 비서실을 어떻게 꾸리든 그것

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민은 차분하게 2기 비서실의 행적을 지켜보면 된다.

김기춘 실장은 이른바 초원복국립 사건의 장본인이다. 그는 1992년 12월 그 북극집에 부산지역 기관장들을 모았다.

박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통합을 3대 국정운영지침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영·호남의 정서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있다면, 비서실장을 임명할 때 그 과정에 대한 적합성부터 먼저 따져야 한다.

김기춘 실장은 그림 국정운영 3대 지침의 다른 두 가지, 즉 정치쇄신이나 경제민주화에는 적합한 인물일까? 박 대통령은 깨끗한 정치, 섬기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정치쇄신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과정에 김기춘 실장이 적격일까?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발할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과제를 위해 김기춘 실장 임명이 불가피했을까?

김기춘 실장이 임명된 뒤 나는 어떤 언론매체에서도 그가 3대 국정과제에 왜 적합한 인물인지 설명한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언론은 단지 그와 박 대통령의 대를 이은 끈질긴 인연과 김기춘 실장의 두터운 인맥을 늘어놓았을 뿐이다.

인사는 인사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실속 정부가 실정을 했다 하더라도 인사를 잘 하면 국민은 새로운 희망을 얻고, 기대를 건다. 그런 과정을 거쳐 새로운 기풍을 진작할 수 있다.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그 인사는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社說

광주 최악의 전세난, 불구경만 할 건가

광주지역 주택 전세시장이 이상 기류를 보이고 있다. 전세 매물이 풀려현상을 빚자 전세값이 집값을 넘어서는 아파트가 나오는가 하면 전세금에 더해 월세를 추가로 내는 반월세 아파트도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기준 광주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전세가율)은 77.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광산구는 무려 80.4%로 전국 자치구 중 1위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매매가보다 비싼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다. 광산구 월계동 모아아파트 95㎡는 매매가가 1억 3000만 원이지만 전셋값은 1억 4000만 원에 달한다.

으로 돌리고 추가로 월세를 내는 것이다.

이 같은 이상 기류는 광주주택대회 선수촌 건립에 따라 전세난이 가중된 것도 영향이 있으나 근본적인 요인은 정부의 안전한 주택정책 탓이 크다.

여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년 전부터 재정난을 이유로 국민임대주택의 준공시기를 연기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지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 등과 같은 단기대책과 함께 주택공급을 임대주택 위주로 전면 전환하고, 전·월세 5% 인상 상한제 등 강력한 세입자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4대약 근절 헛구호 강력범죄 늘었다니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이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에 매달리고 있지만 오히려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나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되려 늘어나 폭행을 높였던 강력범죄 근절 구호가 무색하게 됐다.

경찰에 재삼 당부하고 싶다. 하반기에는 실제 울리거나 보여주기에 정착하지 말고, 범죄예방과 사건 해결에 전념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

은 기간의 1860건보다 437건이나 많았다니 도대체 경찰은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 시민들이 경찰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최근 안전행정부 가 실시한 국민 안전제고조사에서 24.2%만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답했다는 결과는 4대약 척결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육이 조사 대상 여성들의 3분의 2 이상(성인 66.9%, 중·고생 67.9%)은 성폭력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이 불안감을 지니고 산다면 치안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경찰에 재삼 당부하고 싶다. 하반기에는 실제 울리거나 보여주기에 정착하지 말고, 범죄예방과 사건 해결에 전념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신뢰하게 된다.

종교칼럼

“평화를 빕니다!”



김관수 천주교광주대교구 청소년사목국장

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면 그 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감을 따먹기 위해 손수 감나무를 올라가서 획득하게 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자, 천주교회에 입교한 하면, 그리고 세례를 받기만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며 내 인생길이 순탄해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범을 철저히 따라야만 이 획득하게 되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뿌리를 가진 식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막에서 자라는 포아풀입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본능 때문에 대부분의 사막식물은 그 뿌리가 무척 깊습니다.

'평화'는 그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은 겸손한 삶의 자세와 숭고한 회생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공동체가 살아 숨을 쉴 수 있고, 더 나아가 내 사회, 내 나라, 이 지구촌이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을 때, 내 안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팍 찬 영적인 열매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미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최우수작품은 뜻밖에도 무섭게 떨어지는 폭포가 그려진 작품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평화와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단순한 폭포 그림일 텐데, 왜 이 그림이 최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되었을까요?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떨어지는 폭포의 중간 즈음에 불쑥 튀어나온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위에 어미 새가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싶으시거든 평화의 임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머물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으로부터 성실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할까요? 과연 얼마만큼 주님 안에 머물러야 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다음의 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주는 듯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매일 봉헌하는 미사 중에 "평화를 빕니다!"라고 하면서, 미사에 참석 한 신자들 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평화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평화를 서로에게 건네면서 평화를 기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라고 하면, '편안하고 안락함' 또는 '전쟁과 다툼, 근심과 격정, 의심과 미움이 없는 상태'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한 평화를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얻고 싶어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수동적인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평화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감나무 밑에

기후변화와 선진 물관리

크기 때문에 하천 유량의 변동이 매우 심하며 지형적으로 국토의 65% 이상이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 수자원이 일시에 유출되는 특성으로 인해 수자원 관리가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는 효과적인 물관리가 더 이상 간과해선 안 될 선결과제이다.

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을 선정하는 등 바야흐로 댐 및 하천을 연계한 수자원의 활용 문제와 체계적인 재해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인 광역상수도 공급·운영관리 등의 한정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과거에 제방을 높이 쌓아서 홍수를 방지하는 개념에서 나아가 영산강 바닥에 쌓여있는 모래와 흙을 제거해 계획 홍수위를 낮추고, 물이 흐를 수 있는 단면적을 넓히는 등 홍수예방 물그릇을 확보하였다.

또한 하천에 다기능 보를 설치하여 상류댐과 하류 하천의 보와 서로 있는 수자원 시설물(댐·보) 연계 운영과 유역전체의 수량 및 수질을 함께할 수 있는 통합 수자원관리 기술을 통해 하천의 수위를 조절하여 물 여

를철한 4대강과 지천에서 빈번히 발생했던 홍수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K-water에서 수행중인 기존의 다목적댐의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통해 물그릇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장래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용수수요 증가와 홍수재해에 대비하여 정부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에 따라 전국에 신규 건설하기로 계획 중인 6개 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신규 물그릇 확보를 통한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량 확보와 더불어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물관리 시스템 구축 또한 시급하다. K-water에서는 4대강 수계별 통합 물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수계별 신뢰도 높은 자료 취득 및 자료화를 통해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비상시 실시간 대응으로 수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치수사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변하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변화에 따른 기상기후를 막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먼저 환경변화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화학연료 사용을 줄이고 전기, 가스를 아껴 쓰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 또한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껏 우리는 수자원에 대해 무감각했고 식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물은 대체할 수 없는 유한한 자원으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질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물부족으로 인해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인류생존의 근간이 되는 수자원은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야하는 도전과제가 되었다. 이제라도 깨끗하고 풍족한 물을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기고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임용택 나주수도관리단장

'21세기는 블루골드의 시대' 물을 최고의 가치를 지닌 물질인 금으로 표현한 이 말처럼 물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로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물에서 태어나고 물에서 성장하며, 물과 함께 살아간다.

그러나 무분별한 도시 개발 및 인구의 증가로 자연의 자정작용능력은 점점 상실해져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짧아지는 가뭄주기, 더욱 강해지는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 침수와 산사태, 맑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수질 등 이상 기후현상은 변수로 인해 우리는 모두 불안하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앙은 이미 연례 행사가 된지 오래다.

특히 기후적으로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가

無等鼓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13살 때 신문배달로 5000달러를 벌었다. 버핏은 이 돈을 종잣돈 삼아 버크셔 해서웨이를 설립했고, 가치투자를 통해 현재는 598억 달러(약 67조 원)의 세계 최고 갑부가 됐다.

배달구역을 일일이 분석해 가장 빨리 신문을 돌릴 수 있는 지름길을 개발하고, 남보다 먼저 움직이기 위해 신문 접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도 그랬다.

버핏은 "인터넷과 TV가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신문의 콘텐트 전달력과 깊이를 결코 따라 가 못한다"며 신문의 투자가치를 꿰뚫어 봤다. 베조스도 신문의 투자가치에 주목해 WP를 인수했다.

버핏이 이번에는 136년 전통의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 매각으로 뉴스의 중심에 섰다.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조스가 2억5000만 달러에 WP를 인수했는데 최대 수혜자는 버핏이기 때문이다.

버핏은 1973년부터 WP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해 27.9%(24%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지분으로 최대 주주다. 3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한 것이지만 1100만 달러를 투자해 현재 가치로 10억 1000만 달러이니 9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버핏은 "인터넷과 TV가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신문의 콘텐트 전달력과 깊이를 결코 따라 가 못한다"며 신문의 투자가치를 꿰뚫어 봤다. 베조스도 신문의 투자가치에 주목해 WP를 인수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제왕 화제가 됐다. 그는 오마하 워드헤럴드 신문 500부를 접어 청중들에게 건네면서 '나는 신문 배달부일 뿐이요'라는 옛 노래를 불렀다.

두 투자 거장의 신문사 인수가 얽매 하거나 한 것처럼 보이는 종이신문의 미래에 밝은 빛을 던지는 메시지 같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신문의 투자가치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